

LPG 容器충전시설 및 流通構造 現代化事業 일반저침

—動力資源部—

1. 목 적

가스보급의 확대에 따라 국민이 LPG를 안전하고, 적정·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LPG 流通構造를 현대화하려는 것임.

2. 적용대상

LPG용기충전소

3. 容器충전소의 시설현대화

가. 充塲所의 시설기준

(1) 신규 참여업체

● 시설규모

—충전시설 규모: 20—50톤/년

● 시설면

—저장탱크: 충전능력의 1/50에 해당하는 저장탱크 설치(공급차질 대비 1주일분 재고유지)

● 위치

—시 외곽지역에 설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함.

● 충전시설

(기본시설 기준)

—容器충전시설: 잔량측정기→충전기→자동계량기→기밀시험기

—容器보수시설: 잔가스제거기→밸브제거기→밸브보수시설→질량검사기→도색시설→밸브부착기

—장 비: 공급처의 시설안전점검을 위한 검사인원 및 장비 확보
공급능력에 맞는 현대수송장비 보유

(2) 기존업체

● 현시설에서 단계적으로 기본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시설 보완

—1 단계('84년말): 기밀시험기

—2 단계('85년말): 잔량측정기, 자동계량기

—3 단계('87년말): 잔가스제거기, 밸브제거기, 밸브보수시설, 질량검사기, 도색시설, 밸브부착기

나. 副販店의 시설 및 장비

● 사용시설 안전점검 장비 확보

● 계획배달이 가능한 일정규모의 수송장비 확보

4. 流通體系 개선

(1) 신규 참여업체

● 사업개시부터 용량판매, 용기확보 및 계획배달 실시

(2) 기존업체

● '87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용량판매, 용기확보 및 계획배달 실시

5. 기존충전소 보호대책

가. LPG 容器충전소 현대화에 기존용기 충전업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85. 6. 30이전까지는 기존용기충전업자가 새로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86. 6. 30까지 시설을 설치, 사업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精油會社 포함)에 대한 허가는 관내 수급사정으로 보아 추가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5. 7. 1 이후부터 허가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가 관내 수급사정으로 보아 새로운 충전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나, 기존용기충전업자의 허가신청이 없거나 사실상 시설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動資部長官과 협의,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기존용기충전업자는 상기 시설보완기준에 따라 기존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변경허가를 신청, 보완하여야 한다.

다.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사업을 계속코져 하는 容器 충전업자가 기존 개인사용용기 및 추가설치 용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가스安全管理基金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용자 지원함.

라. 시·도지사는 충전소 허가에 있어서 새로 충전사업을 개시함으로써 관내의 일반수요에 비하여 현저하게 파잉시설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과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서울지역 5개 충전소 표본추출에 의한 현대화충전소 경제규모는 연간 LPG 판매물량을 약 25천톤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마. '85. 7. 1 이후 신규사업자(精油社 포함)에게 허가할 경우 관내 수급사정에 비하여 신규참여 희망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기존유통업계의 활용대책이 양호한 자를 우선하여야 함.

6. 기 타

금후 容器충전소를 신규허가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이 이 시설기준과 공급방법(유통체제 개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84. 7. 1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하여야 함.

(참고사항)

- “기존 용기충전업자”라 함은 1984. 4. 15 현재 용기충전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이미 개시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기존 용기충전업자가 새로 容器충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업체로서의 시설기준과 공급방법에 따라야 하되,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업체로서의 시설기준, 공급방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 産油国短信 □

하르그섬 기항유조선은 무차별 공격

— 이라크 대통령, 경고 —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라크 전투기들이 이란의 하르그섬에서 원유선적 작업을 하는 유조선은 아랍국가인 비아랍국가인 국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세인 대통령은 이날 쿠웨이트 신문 편집인단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경고함으로써 이라크가 도입한 프랑스제 쉬페르 에탕다르기들이 지난주 페르시아 만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조선 사피나 알 아랍호를 공격했음을 간접 시인했다.

후세인 대통령은 바그다드에서 열린 쿠웨이트 신문편집인들과의 회견에서 “아랍형제국들이 외국회사에 유조선을 빌려주거나, 하르그섬에서 선적작업을 하지 말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국가이익이 된다고 생각될 때는 하르그섬 자체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후세인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이란, 이라크 전쟁을 획책했으며 연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위협은 자살행위이며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명은 밝힐 수 없으나 두 아랍국가인 이라크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힘」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세인 대통령은 또 시리아가 소련으로부터 이라크원유의 지중해 송유가 가능하도록 시리아 경유송유관을 다시 개통하고자 하는 중재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이란이 이라크 영내 침공에 거듭실패한 결과로 호메이니옹이 심각한 인구감소 사태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